

성인기의 노후생활 준비의식과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전 귀 연(경북대학교 교수) · 배 문 조 (영남이공대학 전임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인들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노후준비교육 및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노인문제를 예방하는데 유용한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대구경북지역의 성인 8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최종 723명의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성별, 종교, 학력, 결혼상태, 소득, 직업, 주관적 건강에 대한 질문과 노인관련특성으로 노인관련프로그램 수강경험, 노인관련 언론매체에 대한 관심, 노인과의 동거유무 및 동거경험에 대한 의견, 노인과의 접촉빈도 및 접촉경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노후준비의식은 노후준비시기, 노후의 국가정책,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여가준비, 주거준비에 대한 내용으로 박지선(2004), 김정표(2005)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노후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선행연구(배계희, 1988, 황승일, 2000, 김기태, 2004)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MANOVA와 Schaffe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업, 본인 소득 및 배우자 소득, 주관적 건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관련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노인관련프로그램수강경험, 노인관련 언론매체에 대한 관심도, 노인과의 동거경험에 대한 생각, 노인과의 접촉빈도 및 접촉의견에 따라 노후준비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직업, 본인소득 및 배우자소득, 주관적 건강에 따라 노후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관련특성에 따른 노후준비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노인관련프로그램수강경험, 노인관련언론매체관심도, 노인과의 동거유무 및 동거경험에 대한 생각, 노인과의 접촉경험에 대한 의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노후준비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50대에 비해 30, 40대의 의식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졸이상이 고졸이하보다, 본인의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여가에 대한 준비의식이 높았다. 노인관련 언론매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관심이 적은 사람보다 경제적 준비의식이 높았고 노인과의 접촉빈도가 많은 사람이 노후준비 시기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행동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신체적, 정서적 준비행동을 보다 잘하고 있었고, 연령에서는 50대가 신체적 준비행동을 잘하고, 정서적 준비행동은 30, 40대가 보다 잘하고 있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경제적 준비행동을 잘하고 있었고 건강이 좋은 사람이 신체적 준비행동과 정서적 준비행동을 보다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노후 준비의식뿐만이 아니라 실제행동에서 실천을 보여주기 위한 교육방안과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다.